

대한항공, 美 공군에 HH-60G 창정비 조기 납품

주일 美 공군의 항공기 정비 사업 수주도 가능



대한 항공은 7월 10일, 부산 김해공장에서 Okinawa(Kadena Base)에 주둔중인 美 공군의 탐색 구조용 주력 헬기인 HH-60G 초도기에 대한 창정비(완전 분해정비)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납품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항공 이실근 상무와 Mr. Michaels(WR-ALC Director, Special Operation)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美 공군은 지금까지 창정비를 위해 C-5 항공기를 이용, 미국 본토 텍사스주 소재 CCAD(Corpus Christi

Army Depot, 미군 정비창)까지 이동해 작업하여 왔으나, 가까운 한국에서 최상의 품질로 계획 대비 약 한달 조기에 인도됨으로써 미군측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향후 10년에 걸쳐 수행될 금번 HH-60G 헬기 창정비 사업은 그 동안 대한항공이 UH-60 헬기 제작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기확보 생산설비와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급격히 축소된 방산물량을 대체하고 외화까지 벌어들이는 삼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사의 항공기부품 생산 능력,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에 대한 고도의 계통통합 기술력 및 완벽한 사업관리능력을 미군측에 알리게 되었다.

지난 5월 2일, 대한항공 김해공장에는 기 계약된 주한 美 육군의 UH-60A헬기가 입고되어 현재 창정비 및 배선 교체 작업이 수행 중에 있다.

대한항공은 향후 주일 美 공군이 일본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F-15, F-16, CH-53 및 SH-60J 항공기에 대한 정비사업 수주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4회 해상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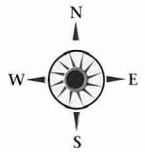
「미래 전장환경 변화와 해상무기체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해상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 능력 고도화를 위한 제4회 해상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가 7월 4일과 5일에 걸쳐 진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제2체계개발본부에서 개최되었다.

해상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급진

적으로 발전하는 해상무기체계 분야의 첨단기술 정보 교류는 물론 연구개발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산·학·연 및 군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1996년 이후 격년으로 개최되어 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와 해상무기체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21세기 군사혁신과 R&D의 필요성, 국방 CALS/EC 체계 발전방향, 조함정보체계 구축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박용득 국방과학 연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걸프전과 아프간전에서 보듯

이 미래 전장환경이 네트워크 중심의 첨단 군사과학기술 대결로 변화할 것”임을 역설하고,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우위가 곧 군사력의 우위를 판가름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첨단 군사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연·군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학술대회 기간 동안 서영길 해군사관학교장, 한광수 해군 군수사령관 등 군 및 연구소, 대학, 방산업체에서 연인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정기술, 수중탐지, 전투체계, 수중무기 및 시험평가 분야에 관한 90여 편의 최신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으며, 국방벤처 제품도 별도로 전시되어 해상 무기체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해상무기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산학회, 제13회 방위산업정책 포럼



방산 학회(회장 : 황동준)는 6월 27일 조선호텔에서 신보현 국방부 연구개발관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연구개발 추진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신보현 연구개발관은 기술 축적 중심의 국방연구개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방부, 국과연, 합참, 각군, 방산업체별 현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자적 첨단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별 추진 방향을 발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21세기 전략환경과 국방발전방향



한국 국방경영분석학회(회장 : 권태영)는 7월 10일 전쟁기념관에서 『21세기 전략환경과 국방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권영호 국방차관은 기조연설에서 국방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안보 보험료인 동시에 미래 국가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투자라고 밝히고,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전력투자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산업정책 토론회 열려

지난 6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인석 의원 주관으로 『빅딜산업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번 토론회는 최정표 건국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종원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전영서 한양대 교수, 이상승 서울대 교수, 최기영 인하대 교수, 이유종 산자부 자본재산업국 산업기계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